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 앞서

서언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 앞서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평신도 단체를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이번 방문을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25년 전 다른 교황님, 이제는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루신 한국방문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비신스키(Wyszynski) 추기경께서 예언하신대로 교회를 제삼천년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이티와 교황의 교황직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가장 관련이 많은 여러 문헌들 중에서도 사도적 교서 『새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를 통해 되돌아볼까 합니다. 2000년 대희년을 폐막하면서 새로운 성인(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온 교회의 목자(주교)들, 사제들,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을 ‘ 광범위하게 맞아들여’ 이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세상의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¹.

세상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알고, 공동선과 교도권의 사회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도록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들을 분별할 줄 알게 합니다. 이런 전제에 따라,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교서를 썼고, 20세기의 교황들은 복음에 비추어 사회 현실을 읽고, 이제는 지구적인 문제가 된 각종 사회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².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윤리-사회 부분에서 강조했듯이 “ 그리스도인의 회피할 수 없는 차원으로서 증거” 를 제시했습니다. “ 사랑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제시하려는 유혹, 강생의 함축된 의미와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긴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긴장은 우리에게 역사의 상대성에 대하여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 건설’ 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³.”

¹참고. 요한 바오로 2 세, 『새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58 항.

²참고. 같은 문헌, 58 항.

³같은 문헌, 52 항.

1.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사회 복음화의 재도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서서히 복음화 자체는 물론 사회 복음화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십니다. 사실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은 그분의 직무와 관련하여 예상한 내용을 담은, 통상적인 교회의 복음선포 임무를 쇄신하는 대헌장(*cartha magna*)이라는 것뿐 아니라, 사회사목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세상 안에서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 증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황께서는 제4장에서 분명하게, 예외적이고 폭넓게, 신앙과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지만, 같은 차원을 문헌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2장에서 시장과 자본의 절대 권력의 우상화가 만들어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도전들(『복음의 기쁨』 56항 참조), 불평등과 배척의 문화 확산,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상대주의와 표면적인 문화의 확산(『복음의 기쁨』 52항-64항 참조)이 그것입니다.

아무튼 교황께서 제시한 선택의 토대가 되는 동기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회적 차원을 “올바로 다루지 않으면, 복음화 사명의 참되고 본질적인 의미가 계속해서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복음의 기쁨』 176항)입니다. 요컨대, 만약 그리스도인이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현실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마르 16,15 참조). 이 사명의 첫 번째 수혜자는 교황께서 가리키시는 대로라면, 당연히 평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2. 복음화의 사회 차원의 실재: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헌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을 통해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가 교회론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망했고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교회들에서 깊이 체험한 것을 보다 보편적인 교회의 차원에서 폭넓게, 세분화하여 사회 복음화를 다시금 추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평신도와 공동체가 각자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이미 복음의 핵심과 첫 선포 혹은 케리그마(*kerygma*)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체 생활과 이웃 사랑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신앙고백에서도 형제애와 정의의 가르침에 대한 이런 의미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형제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육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육화와 전인격적인 구속의 신비를 통해 사회 복음화의 실재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선포의 긴밀한 관계가 대두됩니다. 사회 복음화에 자신을 내어놓거나 혹은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자기 사명에 대한 건설적인 차원입니다. “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적입니다. 바로 이 본성에서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사랑, 이해하고 돕고 격려하는 공감의 솟아납니다.” (『복음의 기쁨』 179항).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의 파견자는 “ 실존의 모든 차원, 모든 개인, 공동체 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쁨』 181항)

복음의 사회적 차원의 실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온 존재로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이 없는 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없이, 오로지 영적인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복음의 기쁨』 88항 참조).

『복음의 기쁨』을 통해 교황께서 사회 복음화의 몇 가지 내용과 동기들에만 집중한다면, 그분이 강조하듯이 현대세계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문헌 『복음의 기쁨』의 본질이기도 한, 대단히 방대한 분야들을 포괄하는 중대한 모든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은 새로운 복음화와 관련한 주교대의원회의의 결과들을 확대시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더욱 세부적인 사회 복음화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교황께서 “ 가장 적합한 도구” 라고 정의한 『간추린 사회 교리』를 찾아볼 것을 제안하며, 이 책을 공부하고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184항 참조).

2004년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에서 발간한 『간추린 사회 교리』에서 사회 복음화를 사목적인 개념으로 묘사하고 - 평신도들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3부를 보면 - 그 주요 분야들을 구분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지닌 사람, 사회의 주요 고위층, 가정, 인간노동, 경제생활, 정치 공동체, 국제공동체, 환경보호, 평화증진이 그것입니다.

3. “나오고 있는” 평신도들, 노동계 내부에서 (거는) 기대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백성처럼,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사회 분야 안에서도 사명의 영속성으로 인해 ‘나오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밖으로, 세상으로, 특히 세상의 주변으로 나오도록 부르심 받은 평신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영성적으로 양성되어 사회교리를 잘 알고 있는 평신도들의 존재를 요구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선포자가 될 수 있는 노동 분야입니다.

사실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최근의 금융-경제 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에서 2억이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고용 전망: 청소년을 위한 검은 노동 시장 전망』(Global Employment Outlook: Bleak Labour Market Prospects for Youth)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낸 연구서에 따르면, 미국 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유로 위기라는 충격을 불러왔고, 이는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청년 일자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글로벌 청년 실업률은 2017년까지 12.9%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해 0.2% 증가하는 것입니다. 실업의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은 인간학적이고 문화적인 질서에 그 원인이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금융계에서는 금융과 경제 논리에 따라 여러 가지 ‘덜 좋은’ 일자리를 밀어내는 경제(지상)주의와 종상주의의 광범위한 사고가 기름때처럼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금융 자본주의와 투기 규제 완화는 - 인간의 벗인 윤리적인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점차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 노동이 의미 없는 것, 혹은 불필요한 현실로 치부해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국민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고 유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무모한

금융거래를 통해 최단시간에 많은 돈을 증식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중심에서부터 일자리와 공동선이 사라지고, 아주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올린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위는) 돈에게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런 왜곡된 시선에 직면하여,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근본적인 지주를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복음화가 시급하게 대두됩니다. 개인, 가정, 사회, 민족들의 발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선(善)**으로서 노동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이 왜 근본적인 선이 되느냐하면 피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초월을 향해 열린 노동 문화의 기초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회칙 『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ercens) 조명했던 바, 노동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인간의 공동선으로 간주되고, 인간은 노동의 주체로 노동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인간이 노동, 경제, 자본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하는 인간은 하느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는 인간이 노동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새로운 복음화는 인간학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가 이상처럼 왜곡된 현실을 극복하도록 하고, 노동에 관한 새로운 용기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도록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윤을 창출하고자 노동 시장을 줄여 새로운 배제된 사람들을 양산하는 계획들에 맞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4. 기업 리더의 소명을 지닌 평신도들

그러므로 이제, 노동계 내에서도 각별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런 순간에, 기업 활동을 ‘소명’으로 여기는 평신도 기업가들에게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고, 협동조합이나 다국적 기업, 가족 기업,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혹은 영리 단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노동계에서는 특별히 위기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세계화, 통신 기술, 보안 혜택과 함께 경제의 금융화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진보적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능력이 없으며 배제시키거나 쓸모없는 연령으로 치부된 사람들과의 불평등의 증가, 순환 경제의 위기, 정보의 과잉, 금융 불안정과 공동선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압력센터들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인솔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공동선의 건설에 종사하기 위해 자기 직업의 기술적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유리한 위치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따른 마땅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그에게 분리되지 않은 내적 생활을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가나 사업가는 자신의 삶과 유리된 이중적인 삶으로서 신앙과 일상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가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활동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 본질이 되는 윤리적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이 시장 경제 내에서, 노동과 고용 자본은 물론 혁신 프로세스들을 조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 활동과 상업 시스템의 최종 목적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응답을 하는데 있습니다. 즉, 기업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요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에 입각한다면, 그리스도인 기업가의 활동은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기업의 실질적인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원칙들이란 생산을 통해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고,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노동을 조직화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 협력자·손님·투자자·조달자들과 공동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합당한 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⁴.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복음과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부(富)의 생산뿐 아니라, 그것의 공정한 분배에도 기여한다는, 경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회칙 『진리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에서 이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생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경제로 드러나고, 정당한 규범, 정책적인 재분재의 형식,

⁴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는 얼마 전에 기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기업가들도 그들의 전문적인 일을 통해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 책은 이미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성공적인 출판으로 기록되었다. 책의 제목은 『기업 리더의 소명』(*La vocazione del leader d'impresa*)이다. 교황청 평의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iustitiaetpax.va.

무상의 은사 논리의 틀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민주적’인 경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안에서 시장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 공공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업, 기업 형태의 기관,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한 회사 그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⁵. **기업가 정신**으로 특징짓는 이런 경제 전망에 따라 생산된 부를 더 잘 분배하려는 행위로서 이곳 한국에서도 반드시 주목하고 지지할 만한 2012년에 승인된 협동조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연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상호의존(공생)과 사회적 기업·가족 기업을 통한 **복지 공동체**의 모델을 증진하게 합니다.

5. 정치로 ‘나오고 있는’ 평신도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있어 **평신도**는 특별히, **사회에 속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남과 사회적 대화**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써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황께서는 오늘날 평신도의 **사회적 양성과 전문적이고 지적인 분야에서 복음화**는 중요한 사목적 도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 교육과 신앙 거행의 임무에 매우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 하시면서, “[...] 많은 신자가 평신도 봉사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가 흔히 교회 안의 임무에 머물고 말아, 복음에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102항)고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 정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특수한 소명이자 도덕적 의무(『복음의 기쁨』 220항 참조)라고 하십니다.

⁵베네딕토 교황께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과 더불어, 상호 부조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안의 사랑』 38 항)고 기원하였다.

다음은 교황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정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몇 가지 방침입니다.

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지 말고** 그들이 지닌 문제의 아픈 현실과 접촉하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78항 참조); **약육강식, 근시안적인 시각, 배척과 버림의 문화**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53항 참조); **화려한 이미지로 축소된 정치, 소수의 재화 독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188항 참조).

②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빈곤에** 관심을 가지고(210-215항 참조⁶), 연대와 더불어 그 이상의 돌봄 - 돌보는 차원에는 종종 임시방편인 것이 있음(202항 참조) - 이 있어야 한다. **연대성은 빈곤의 구조적 원인들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위한 온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교육과 의료 혜택 및 일자리 지원(고용)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205항 참조).

③ 이어서, 배척을 양산하고 시장과 자본을 절대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포기하고, 반대로 이미 언급한 바, **기업가 정신**으로 특징짓는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있어 (시장의) 눈먼 힘과 ‘보이지 않는 손’의 활동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의로운 성장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이상을 요구한다. “더 나은 소득분배, 일자리 창출, 단순한 복지 정신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진보를 분명히 지향하는 결정, 계획, 구조 과정을 요구합니다.” (204항)

④ **경제정책**은 무질서한 투기적 금융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반영하는 경제정책이 되어야지 걸치레에 불과한 부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203항 참조).

⑤ 윤리적인 측면이 무시되지 않는 **금융 개혁**을 실현한다. “돈은 봉사해야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58항 참조)

⁶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노숙자, 중독자, 난민, 토착민, 노인, 이민자, 배척과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상황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여성들의 슬픈 현상, 낙태, 다양한 피조물의 멸종과 환경파괴 등입니다.(참조. 복음의 기쁨 209-216 항)

⑥ 효과적인 중재방식을 확보하여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일부가 아닌 모든 나라의 경제적 안녕을 보장해 주는 **건강한 세계 경제**를 달성한다(206항 참조).

⑦ 결론적으로 경제와 자본에 **우선하는 정치를 회복**한다.(그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에 봉사한다.)

다른 말로 해서, 국민의 대표자들과 시민들은 오늘날 다음과 같이 부르심 받았습시다.

㉠ ‘**고강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대중 영합주의와 과두정치, 혹은 온정주의의 위험들을 극복함으로써 대표 민주주의뿐 아니라 더 참여적이고 사회적인 민주주의⁷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미래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장받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⁸.

⑥ **초국가적인 기구들의 개혁**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엔기구(UN: 국제 연합기구),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네딕토 16세께서도 『진리안의 사랑』(67항 참조)에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공동선과 사회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한 국민이라는 체험, 국민으로서 우리, 곧 많은 이들의 집합체로 살아감으로써 부르심 받은 바, 공동선을 지향하며 **온전한 시민**을 향해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애의 신비와 만남·다문화·다종교간의 대화 방식을 세심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의 국민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건설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프란치스코

⁷참조. J. M. Bergoglio, 『시민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정의와 연대의 2 천 년대를 향하여. 2010-2016』(Noi come cittadini. Noi come popolo. Verso un bicentenario in giustizia e solidarietà. 2010-2016), Libreria Editrice Vaticana-Jaca Book, Città del Vaticano-Milano 2013, 31-32 쪽.

⁸ 참조. Z. Bauman, 『공포의 악마』(Il demone della paura), Editori Laterza-Gruppo Editoriale L' Espresso Spa, Roma-Bari-Roma 2014, 48 쪽.

교황께서는 교회의 사회교리에 기초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시민의 공생발전과 국민건설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차이는 공동선이라고 부르는 공통된 계획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들은 “**시간은 공간보다 중요하다.**”,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 “**실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 (222-237항 참조)는 것입니다.

6. 결어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5장에서 제시하신 대로, 말만이 아니라, 특히 하느님 현존으로 변모된 삶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와 자기 공동체와 자기 형제들과 친교를 이루며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깃들어 이끄시는 복음 선포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자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로부터 나와 삶의 변두리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육화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사랑의 요구만이 아니라, 강생(육화)의 논리라도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62항 참조).

+ 마리오 토소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무총장